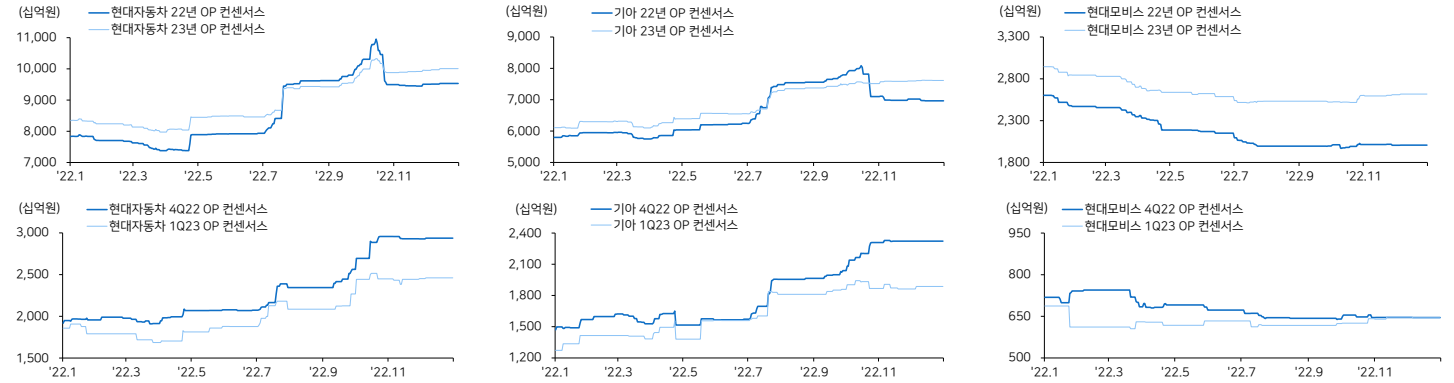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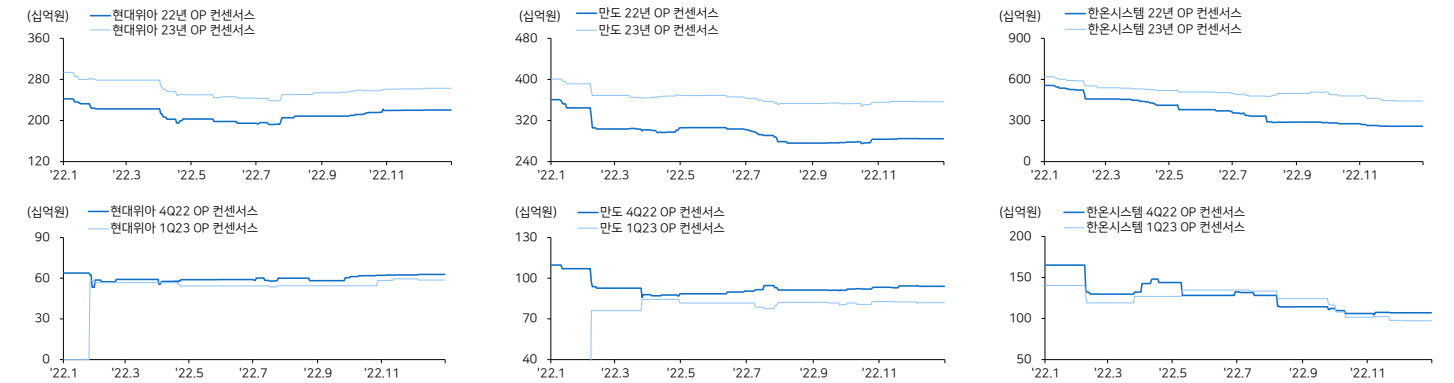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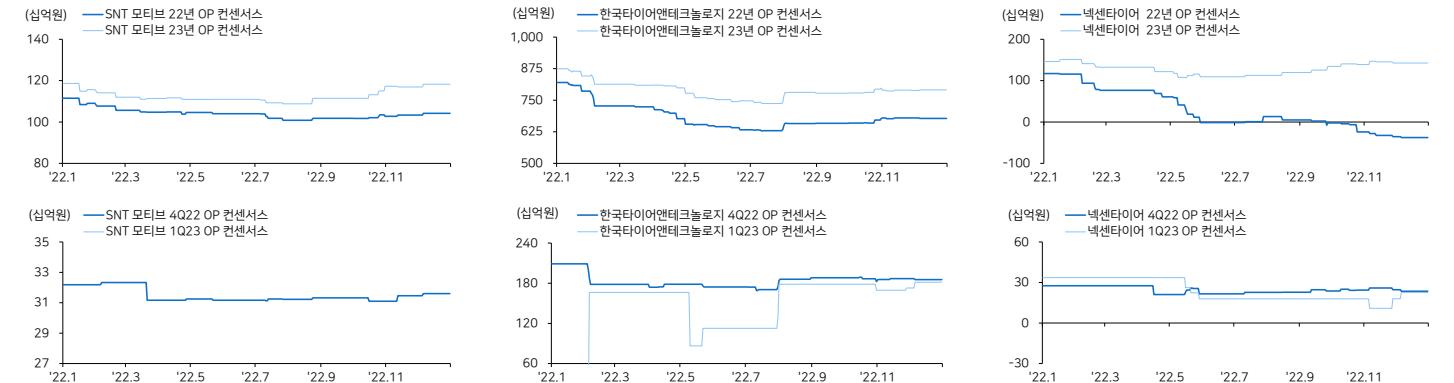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올해도 '카플레이션'...대형 SUV 전기차 줄줄이, 가격 인상 '가속' (동아일보)

올해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대형 SUV 전기차 신차가 등장하며 카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됨. 국내 승용차 평균값은 2020년 3,046만원에서 1H21 3,511만원으로 상승, 수입 승용차 가격도 동기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Cdro6H>

현대차·기아, 인도 80만대 시대 열어...역대 최고 판매 동반 달성 (THE GURU)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 인도 내수 시장에서 사상 최대 판매고를 기록, 연간 80만대 시대를 연 것으로 나타남. 단일 시장 기준으로는 미국과 한국에 이어 3위 시장이며, 권역분별 미국과 유럽, 한국에 이어 4위로 확실한 자리매김.
<https://bit.ly/3w3Fuz>

Tesla announces record 405,000 vehicles delivered in Q4 2022 (electrek)

테슬라는 4Q22 405,278대 차량을 인도하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 생산량은 439,701대를 기록, 이로써 2022년 인도량은 yoy +40% 증가한 131만대, 생산량은 +47% 증가한 137만대를 기록.
<https://bit.ly/3VKL1tv>

This is the Norway - nation hits record EV share in 2022 on its way to ending gas car sales (electrek)

노르웨이는 2022년 전체 자동차 판매 중 약 80%를 BEV로 달성. 이는 2025년에 100% BEV 판매라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 2022년 최대 판매 모델은 Tesla Model Y였으며, VW ID.4가 2위를 차지.
<https://bit.ly/3GvqKMX>

현대차·기아 경쟁우위, 두자릿수도 뚫었다 (매일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며 2년 연속 5위를 확정지음.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신차 147만대를 판매, 점유율은 10.6%(yoy +0.7%p)를 달성.
<https://bit.ly/3zwwCsv>

대륙의 테슬라 운다' 비아디 韓 상륙 준비...자동차 업계 긴장 (파이낸셜뉴스)

세계 2위 전기차 기업 중국 BYD가 이달 일본에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한국 승용차 시장에 상륙을 앞두고 있음.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공격적 마케팅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심리적 시장장벽'을 깨는데 주력.
<https://bit.ly/3wpDDzK>

Tesla announces a new 'Investor Day', will discuss new vehicle platform (electrek)

테슬라는 2023년 3월 1일 장기 확장 계획과 새로운 차량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Investor Day 2023를 개최한다고 발표. 기가 팩스에서 열릴 것이며 공장견학이 포함될 예정.
<https://bit.ly/3Z4K5EI>

BYD sells 235,197 NEVs in Dec, up 2% from Nov (CNEV Post)

BYD는 12월 235,197대 NEV를 판매, 4개월 연속 20만대 이상을 달성. BEV 판매는 111,939대로 yoy +131.68% 상승, PHEV는 122,659대로 yoy +175.6% 상승함. 수출 물량은 11월 12,318대보다 하회한 11,320대를 기록.
<https://bit.ly/3X3CHev>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